

창립 35돌 ... 2천7백여 회원이 참여하는 한국생화학회

사단법인 한국생화학회는 생명과학 중 생화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를 위해 결성된 학술단체이다. 특별히, 생화학과 이에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생명과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학, 의학, 약학, 농학 분야의 생화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근배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1967년 8월 서울에서 창설되었다. 이후 35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이를 모두 잘 극복하고 이젠 국내 회원 약 2천7백여명의 어엿한 성년의 학회가 되었다. 그 동안 많은 회원들이 학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 뿐 아니라 국내 생명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金 有 三

(한국생화학회장/연세대 생화학과 교수)

5월에 노벨수상자 초청 강연

학회의 주된 활동으로 1년에 2회의 학술대회 즉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회원간 학술적 정보를 획득하게 한다. 이 학술대회 동안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저명한 학자를 모셔 이들의 연구 경험과 첨단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양질의 학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올해 5월 중순에 개최한 제 58회 학술대회에서는 작년도 노벨의 학생리학상을 탄 Paul Greengard박사를 주요 강연자로 모셔 노벨상을 받기까지의 연구 경험과 새로운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학술대회에서는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등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적 현상을 발표할 뿐 아니라, 최근에

유행하는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프로테오믹스 등 첨단의 생명공학 분야도 활발히 소개된다. 1년에 두번씩 개최되는 학술대회 외에도 특별한 주제를 소개하기 위한 워크숍이 자주 개최된다. 그 예로 지난 8월 20일 '프로테오믹스'란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가졌다. 이러한 워크숍은 대체로 약 2백명 정도의 회원이 참가하여 책

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실제로 실험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이를 연구하는 연구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회의 학술활동 중 독특한 학술컨퍼런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설악컨퍼런스이다. 이는 바로 미국의 Cold Spring Harbor를 흉내내어 15년 전 설악산 대명콘도에서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이 설악컨퍼런스에서는 몇개의 주제만 가지고 연구자가 최근의 연구결과를 직접 발표하게 한다. 특히, 연구에 활발한 교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써 많은 학술 정보를 토론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설악산 산행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약 70~80명의 교수가 거의 매년 참석하고 있다. 최근엔 설악컨퍼런스를 흉내낸 유사컨퍼런스가 타 학회에도 유행하고 있다.

생화학회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는 이 분야의 유일한 학회이다. 즉, 우리 학회는 1982년 '국제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연맹'

1967년 8월 서울서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생화학회는 이제 2천7백여명의 회원이 등쳐 왕성한 학술활동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회로 발전하고 있다. 매년 2차례씩 학술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정기간행물인 「JBMB(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지)」는 격월(매년 6회)로, 「생화학뉴스」는 계간(매년 4회)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International Union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IUBMB)에 가입하였고 그 이전 1973년에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자 및 분자생물학자 연합회' (Federation of Asia and Oceanian Biochemists and Molecular Biologists, FAOBMB)에 회원국으로 공식적으로 가입하여 국제적 학술교류의 장을 열었다. 특별히, 국제학술단체의 중요한 회원국으로 공인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즉, 1989년에 FAOBMB Congress를 서울에서 유치하였고, 1999년에는 IUBMB Seoul Conference를 'Molecular & Cellular Networks'란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곧 가까운 장래에 IUBMB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

학회지 격월 발간 ... "국제적 학회"

우리 학회의 정기 간행물로는 1968년부터 발행되는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JBMB,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지)」가 있으며 이는 매년 6회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4회 발행되는 「생화학뉴스

(Biochemistry News)」가 1981년부터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또한,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지」(JBMB)는 Medline을 비롯, Biochemistry-Biophysics Citation Index, SciSearch 등에 등재되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은 발행 즉시 전 세계 관련 학자 및 연구소에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정보산업화의 시대이다. 한국생화학회는 이미 1996년 2월자로 국내의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 홈페이지(<http://www.biochem.or.kr>)를 구축하여 국내 회원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에게 학회의 활동과 생명공학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전체량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회지, 뉴스지, 학술대회 논문집, 총설 등을 모두 CD롬으로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예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 학회장을 비롯, 간사장을 중심으로 여러 간사가 학회 일을 맡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여 상당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엔 무사강연, 동천 신진과학상, 동헌 생화학상 등 다양한 상을 마련하여 연구에 정진하는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함으로써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비록 35년 전에는 참으로 초라하게 시작한 생화학회가 이제는 그 발표 내용이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우수한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꾸준히 노력한 회원의 공이다. 그러나, 미래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본 학회의 회원 중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세계 굴지 학회로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㉟